

Graphic??





<네모동그라미세모>, ??, 글과 벽과 빔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 '문윤서'를 모티프로, 시작적으로 풀어냈다. 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을 벽에 글로 적고, 그녀의 이름에서 도형 세개를 따와 시각화해 영상과 액자, 사진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그녀의 얼굴을 프린트한 사진 위에 쏘아 재미있는 결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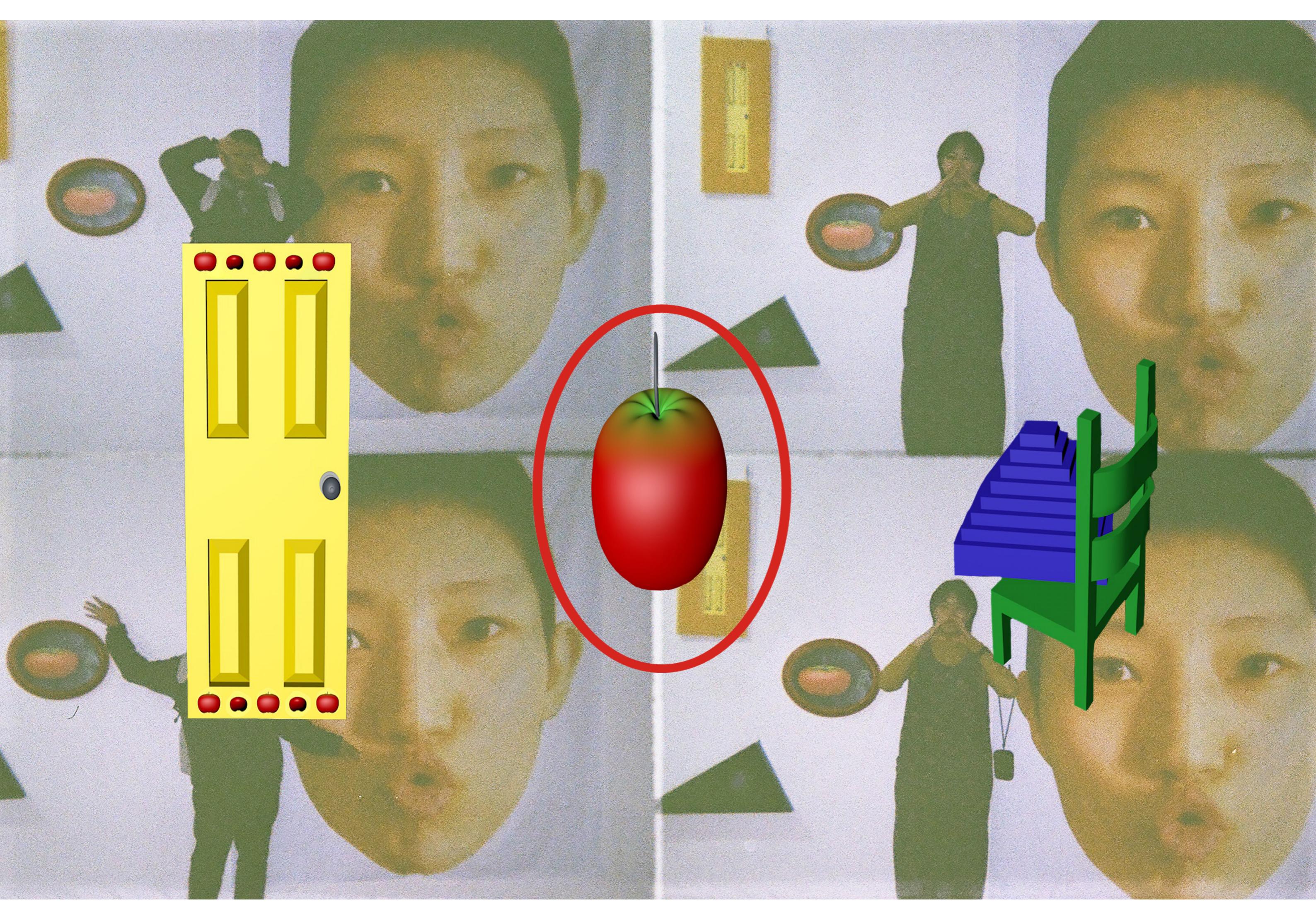


내 친구 문윤서는 이름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전부 들어간다. 물론 "ㅅ"을 세모로 보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시적 허용과 같은 맥락으로 봐 주자. 나는 윤서를 중학교 때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이름에 이런 재미난 도형적 특성이 있다는 걸 얼마전에 알고야 말았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눈과 귀와 입이 하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란 이렇게나 어렵다. 하긴 나는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걸...

윤서는 얼굴에 뾰족하고 각진 부분이 많다. 코도 뾰족하고, 크고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또 얼굴도 선이 뚜렷하다. 그렇다. 윤서는 꽤나 잘생겼다. 반면 나는 윤서와 완전 정반대로 둥글둥글한 얼굴과 눈과 코와 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때로 문네모와 윤그라미라고 부른다.

나는 윤서를 사랑한다. 윤서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을 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뿐이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믿는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윤서에게 이 전시를 바친다.





<네모동그라미세모>, ??, 글과 벽과 빔

벽에 붙인 윤서의 사진위에 네모동그라미세모로 만든 영상을 쏘았다.